최강희 감독 새터민 학생들에게 희망선물

서울 은정초에 친환경 인조잔디구장 마련해줘

전북현대모터스의 감독이자 (사)희망나눔최강희축구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 서울 은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지난 10일 개관식과 함께 전달했다.

은정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새터민(탈북)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전교생의 30% 학생들이 탈북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돼 있다.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은정초는 양천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 방지 및 새터민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 돕기 일환으로 '은정-YP F.C'라는 축구팀을 창단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 감독은 (사)희망나눔최강희축구의 코치진을 파견해 학생들을 지도를 돕고 축구용품도 지원하며 인연을 맺어왔고, 지난 2015년 전북현대 선수들과 직접 방문한 후 인조잔디 축구장 선물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큰 선물을 받은 은정초 장옥화 교장은 "평소 최강희 감독님이 우리 지역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였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최강희 감독과 전북현대를 응원 하겠다"고 전했다.

최강희 감독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면서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 축구인재 지원 등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최강희 감독을 비롯해, 올리 슈틸리케 축구대표님 감독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조중연 前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의 감독이자 (사)희망나눔최강희축구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 서울 은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지난 10일 개장식과 함께 전달했다.

강정호, 신시내티전 2루타 1타점 활약

팀 역전 성공 기여
시즌 타율 0.250

미국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28)가 2루타와 타점을 추가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6 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50(12타수 3안타)이 됐다.

앞서 두 타석에서 범타에 그친 강정호는 6회초 1사 1,3루 상황에서 유격수 앞 땅볼에 그쳤지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타점을 올렸다.

시즌 5타점째다. 올 시즌 강정호는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모두 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귀중한 타점을 앞세워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전날 대타로 나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던 강정호는 이날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는 팀이 0-1로 뒤진 2회초 1사 상황에서 신시내티 스트레일리에게 3구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고 두 번째 타석인 4회 2사 2루 득점권 기회에서는 초구를 받아쳤지만 포수 뒤로 가는 파울플라이를 기록했다.

6회초 1-1로 맞선 1사 1,3루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스트레일리의 초구 슬라이더(82마일)를 밀어치며 유격수 내야 땅볼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아웃 처리됐지만 그 사이 3루에 있던 그레고리 폴랑코가 홈을 밟으면서 타점을 올렸다.

9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는 2루타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도 초구를 노렸다. 강정호는 신시내티 마무리 토니 싱그라니의 초구 포심패스트볼을 밀어치며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쳤다. 강정호는 대주자 션 로드리게스와 교체됐다.

이후 후속타자들의 득점 불발로 피츠버그는 2-3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피츠버그는 17승15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지켰다.

/김민근 기자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6 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남원시 전국 남·여 궁도대회 개최
200여팀 1,600여명 참가

남원시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남원관덕정에서 "제71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전국 최고의 전통과 최대 명문대회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궁도대회는 전국 각 정에서 약 200여팀 1,600여명의 궁도 동호인 및 가족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뛰어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경기는 단체전,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부부대항전, 실업부 등 6개 부문에서 최고의 궁사를 뽑아 시상한다.

궁도는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전통무예로, 오천년 한국사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호국의 무예로써 국민정서를 함양하고 예의와 규범을 중시하며 심신단련에 최적인 전통스포츠다.

특히, 남원에서 열리는 궁도대회는 1931년 춘향제와 같이 시작하여 올해로 71회를 맞이한 대회로써 그 권위와 명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궁도체험관을 건립해 많은 일반인이 궁도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궁도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궁도 동호인 모두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대회가 되길 바라며 대회기간 남원의 멋과 맛을 맘껏 느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 본격 업무 개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본격 업무 개시를 위한 2처 1실 2부 7과 8팀의 첫 공식 업무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도 체육회 류창옥 사무처장은 "전라북도체육회는 공동운명체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모두 함께 협심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라북도체육회가 되자"며 "또한 새롭게 제정된 규정 등 사무처 업무 전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통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체육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바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유를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아가자"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하이트맥주 역도팀 3명 킹스컵 국제선수권 입상

하이트맥주 역도팀이 제14회 이갓(EGAT) 킹스컵 국제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출전선수 3명이 전원 입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58kg급에 출전한 김소희 선수와 69kg급에 출전한 이주희 선수가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은메달 3개씩 획득하였으며, 75kg급에 출전한 문민희 선수는 인상, 용상, 합계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용훈 하이트맥주 감독은 "얼마 전 국내에서 끝난 실업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데 이어 국제대회에서도 선전을 해줘서 고맙고, 기량이 지속으로 향상 되고 있어 금년 한해도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13일 김제에서 열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주최하는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3일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열린다.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2,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을 비롯해 그라운드골프, 에어로빅체조, 타구, 테니스 등 일반종목 5개와 윷놀이, 제기차기, 고리걸기, 투호 등 민속종목 4개를 합쳐 9개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작년에 비해 200여명 이상 참가자가 늘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체육회 류창옥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실버스포츠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활기찬 노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민근기자

박지성·안정환, U-20 월드컵 홍보대사 임명

2000년대 한국 축구의 대표적 스타인 안정환과 박지성(이상 은퇴)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알리기에 나선다.

2017피파20세이하월드컵조직위원회는 안정환과 박지성을 대회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정환은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며 팀의 4강 신화를 전두지휘했다.

박지성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8시즌 간 맹활약했다.

안정환은 K리그에서,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각각 홍보대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김민근기자